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6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대전고법
보수전장 재정신청
기각해

대전고법의 정치적 판결 완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결국 예상대로 완성되었다. 1월 16일 대전고법은 보수전장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법은 유성기업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컨티넨탈과 보수전장의 재정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사회적 여론의 압박을 받아온 유성기업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일부 인정한 것이고 나머진 전부 기각한 것이다. 그 간의 고공농성, 현장투쟁 등이 없었으면 유성기업 재정신청도 아마 기각될 위험이 컸을 것이다.

법원이 외면해도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보수전장이 창조건설팅과 거래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8억원의 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창조건설팅 문건 중 사측이 어용노조 핵심 인물을 직접 만나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과는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보수전장지회는 사측의 금속노조 차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노조파괴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출투를 하고 있고 108배를 100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부당해고 투쟁도 법원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 지금은 로비농성을 통해 임금교섭 타결과 해고자 복직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검찰, 법원이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현장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다. 이미 올해 초 교대제 개편을 두고 금속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해냈다.

노조파괴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검찰과 법원의 비호 아래에서 보수전장 자본은 지금도 노조파괴를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내린 부당해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로 인해 해고된 2명의 노동자가 3년째 길거리로 내쫓겨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종 차별과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왔다. 보수전장 자본은 해고자를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사죄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의 비호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

보수전장은 노조파괴 사죄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재정신청 수용 후 유성기업 첫 재판 열린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재정신청이 수용된 이후 첫 재판이 드디어 열린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논란으로 면죄부를 받는 듯 했던 유성기업은 대전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동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는 많이 입증되었다. 각종 민사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기도 했고, 이번 재정신청 결과에서도 대전고법은 유성기업이 어용노조 설립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결정한 만큼, 천안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유성기업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이 유성기업에 끝없이 면죄부를 주며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영동 공장에서 사측은 몰래카메라 설치, 금속노조 조합원 성추행,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동검찰청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제기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벌금형을 내리면서 노골적인 편파수사를 보여주었다. 노조파괴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어야 무법천지인 유성기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충북교육청 농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째 충북 도교육청에서 농성 중이다. 21일 오후 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임금교섭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교섭 요구안 내용은 급식비 8만원 지급과 장기근무수당 상한선 폐기, 상여금 신설 등이다.

충북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부터 급식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북교육청은 정규직에게는 매월 급식비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종사자들은 직접 밥을 만들지만 정작 자신들은 밥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예산 핑계만 대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신학기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농성장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주말까지도 반납하고 농성에 연대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충북지역 최초의 진보교육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정규직에게 밥값을 주지 않는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불어오는 민주파의 바람

현대중공업노조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로 분류되는 대의원이 대거 당선됐다. 94년 이후 입사한 젊은 조합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의원 17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총 158명이 당선됐다. 당선자 중 108명은 민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17명은 23일 진행되는 결선투표나 재투표에서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했던 옛 집행부 소속 대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며 “옛 집행부 소속 대의원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선거구의 경우 반대표가 절반을 넘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 내부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임금인상률에 따른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결, 사무·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회사의 희망퇴직 추진 등으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정서가 커진 것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중간 세대 없이 양분된 조합원 구성도 변화 요인이다.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80년대 노조민주화 투쟁을 겪었던 세대와 94년 이후 입사한 세대로 구분된다. 이 중 94년 이후 입사자들은 현대중노사가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했던 시기와 맞물려 사실상 임금인상 수혜를 입지 못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근속연수에 따른 조합원 간 임금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젊은 조합원의 결집된 표심은 2013년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노조 파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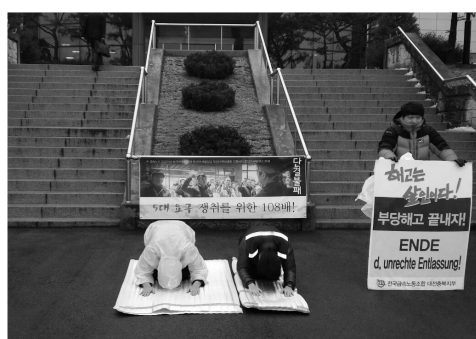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1.21 쌍차 순회투쟁_PLA지회와 함께>



<1.22 콘티넨탈지회 아침출투_108배>



<1.22 한국타이어 기자회견>



<1.22 법률학교_한국타이어 부지회장>